역대 대통령 한자리에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보훈전우거리를 찾은 어린이들이 일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전시된 대통령 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포탈범 연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단체도 대상… 국세청 선별작업 진행중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된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단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자 임 청장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시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검찰과의 수차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기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공개 대상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진 한기자 mkim@metroseoul.co.kr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더 줄어

5년전 27.1%→작년 24.8%

이공계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지난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인력의 비중은 24.8%에 그쳤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인력 비중은 2009년 27.1%에서 2010년 25.8%로 낮아졌고 이후 24~25% 대에 머물렀다.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히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이공계 인력의 비중은 31.7%로 2009년의 30.8%와 큰 차이가 없었다.

5급 신규채용 중 이공계는 40% 내외를 차지해 고위공직자나 4급 이상 관리자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편이었다.

다만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중 이공계는 38.8%로, 2010년의 41.6%에 견줘 소폭 감소했다.

/윤다혜기자 ydh@

꽉 막힌 국회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해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방문취업 동포, 3시간 기초 법·제도 교육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에게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교육이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제도·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교육이 외국인등록 시 전요건"이라고 밝혔다.

'함바비리' 전 여수서장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은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9) 전 여수경찰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700만원을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추석 선물로 여야 모두 '진도 특산물'

● 여야 지도부가 추석 선물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 특산물을 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진도산 선물을 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선물로 진도산 특산물을 선택했다.

총리 담화 후속조치 회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왼쪽 둘째)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제 산더미' 정기국회 문은 열지만…

새정치연합 일단 개회식 참석…안개 정국은 계속

1일 시작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 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자금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정치부기자

한국형·차기 전투기 이달 말 본격화

미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을 합해 1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양산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이달 말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김민준기자

제2롯데월드 개장 금주 확정

임시개장 승인 여부 발표… 서울시 아직 찬반 엇갈려

서울시가 추석 전인 이번 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롯데그룹이 제출한 보완서 검토를 마치고 시장단의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내부에서는 이전에 추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고려해 개장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달 초 시가 지적한 각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교통 분야는 지난 24일 롯데 측이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구간 지하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된 분위기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시는 대체로 '합격'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의 경우 지반기초파일 108개가 사용됐고, 저층부동에도 독립기초와 매트기초를 시공한 점을 들어 침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11㎜가량 침하가 발생한 건 설계기준(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석촌지하차도 아래 동공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 탓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일각에서는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도로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개장 후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이 시에 다 돌아올 수 있어 섣불리 승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공원까지 널린 빨래 수해 복구가 한창인 3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 뒤편 체육공원에 수해 이주민의 세탁된 빨래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즐겁게 포도 밟아요" 전국 최대 포도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열린 '2014 포도축제' 가 성황이다. 31일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포도밟기 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즐거워 맨발로 춤을 추며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영동군 제공

금품수수 검찰공무원 4년 새 4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은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10년의 4.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3억9685억원을 기록,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에 달했다.

/윤다혜기자 yollvill

스쿨존 이면도로 132곳 연말 정비

안전행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 200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132곳을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스쿨존 내 통학로에 연계된 이면도로로,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곳들이다. 또 지난해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쿨존 32곳에서 발견된 문제점 338건도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도 제한속도가 70~80㎞로 지나치게 높은 57곳에 대해선 연말까지 제한 속도를 60㎞ 이하로 낮춘다. 주정차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은 다음 달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된다.

/윤다혜기자

윤일병 사망 직전 "살려달라" 애원

목격자 진술 …3군 검찰부 살인죄 적용 아직 결정 못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4월 6일 숨진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22) 일병은 숨지기 2~3일 전 기마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핵심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서 드러났다.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도 이를 본 목격자도 윤 일병이 계속 구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4월 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때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병장이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라고 하자 다 병장 등 다른 선임들도 주먹질에 가담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외부에서 식사하지 못했고 종교행사에 가는 것도 선임들이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가해자들이 편이 빠지면 교대를 해가며 얼드린 윤 일병이 버틸 견뎌자는 등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김 일병은 이때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납북 포로' 동생 교원 복직 패소

'납북 포로' 안학수씨의 동생 안용수(66)씨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 때문에 잃은 교사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33년만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북으로 안씨가 오랜 기간 고초를 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씨가 사직을 결심할 만큼 교장의 강압이 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학수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던 하사로 1966년 현지에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뒤 대남 선전에 이용됐다. 하지만 세간에 안학수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안씨는 교사가 돼서도 교장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1980년 9월 사직서를 냈다.

/윤다혜기자

"학생에 폭력조장 교사 파면은 정당"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A 교사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A 씨는 시험 출제의 관련한 비위도 저질렀다"며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게 했다.

/윤다혜기자

빗물 사랑 UCC 공모전

서울시는 빗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빗물 재이용 사례를 통해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빗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콘텐츠 확보 등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최우수 1명(팀)에게 수상200만원 및 상장을 수여하는 등 총 7명(팀)에게 시상금 450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응모분야는 동영상, 웹툰, UCC로서 빗물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 공모전 운영 홈페이지인 와우서울(wow.seoul.go.kr)에 접수하면 된다.

여름해변 운영 종료 – 없으므로 수영을 절대금지 강릉시

해수욕장 찾은 막바지 피서객 지난달 25일 폐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31일 막바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이 찾아 아쉬운 속에 가는 여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10년 근속 어렵다

상장사 50곳 중 절반 그쳐… 남성보다 여성 직원이 더 힘들어

주요 대기업 50곳 가운데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긴 회사가 11개사에 그쳤다. 이들 11개 기업 대부분도 전체 사업부문이 아닌 일부에서만 남성보다 길어 한국 여성의 대기업 근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6월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네이버는 여성 근속연수가 4.96년으로 남성(4.46년)보다 길었다. 이외에 현대상선(여15.1년·남14.5년), LG(여4.1년·남2.8년), KB금융지주(여2.5년·남2.1년), 하나금융지주(여3.3년·남2.9년)가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길었다.

나머지 6개사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에서만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을 웃돌았다. 아모레퍼시픽의 MC&S(생활용품 및 녹차) 부문의 여성 근속연수는 15.23년으로 남성(8.17년)과의 근속연수 격차(7.06년)가 가장 컸다.

그밖에 KT&G 담배 부문(여19.0년·남17.0년), 현대건설 지원조직(여9.0년·남8.4년), 오리온 외식판매직 부문(여2.1년·남1.6년), 강원랜드 스키장 골프 부문(여9.5년·남9.3년)의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길었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는 남성 근속연수가 여성을 크게 앞질렀다. 현대위아의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의 남성 근속연수는 19.1년인 반면 여성 근속연수는 5.2년에 그쳐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13.9년에 달했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상장사는 전체 50개사 중 절반(24개사)에 머물렀다. 한국전력이 18.5년으로 가장 길었고 포스코(18.1년), KT(18.0년), KT&G(17.0년)의 근속연수도 긴 편에 속했다.

/김은준기자 mkmk@metroseoul.co.kr

개강 앞둔 대학가 2학기 개강을 앞둔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 원룸, 하숙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홈쇼핑 카드깡' 180억원대

홈쇼핑 카드깡 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해 허위매출을 작성하고 대출 영업을 한 금액이 180억원을 넘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지난해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하급준기자

교차로서 우회전 기다렸다 '쾅'

보험금 노린 40대 적발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회에 걸쳐 보험사 9곳으로부터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정차 중 문 개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4건의 범행 가운데 10건 정도가 서울 종로구 혜화 로터리에서 이뤄졌다. 이곳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달리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기다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박씨는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진주기자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의 주인공인 ALS(루게릭병) 환자들을 포함해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인문학 교실 '행복한 마음학교'의 이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보재단은 2007년 삼성·교보·한화 등 18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문학 수업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및 가족 등 237명이 참여했다.

또한 인문학수업 뿐 아니라 미술관 관람, 도자기 체험, 부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장기간 투병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후 환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환우 및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수업을 통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기(오른쪽)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미데지 세키자와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회장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한-일 산재예방 협력 강화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일본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와 산재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보유 기술자료 교환, 인적교류, 전문가 연구활동 협조 등에서 공동 노력을 펼쳐 나간다.

산학협력 대학 5곳 선정

교육부는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우수조치 계획'에 따라 '코어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 대학을 권역별로 5개교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성균관대(수도권), 충북대(충청권), 전남대(호남·제주권), 경북대(대구·경북·강원권), 경상대(동남권) 등이다.

코어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의 혁신기술 상용화 성공 모델을 만들고 대학과 기업 간 다양한 협력 수요를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조다혜기자

고금리 학자금, 오늘부터 싼 금리 전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2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전환대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44만4000명이다. 전환대출을 하게 되면 과거 최고 7.8%의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인 2.9%로 낮아지게 된다.

2차 신청부터 만 56세 이상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2차 신청 기간은 1~18일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전환대출 때에는 8만 9427명이 신청해 전체 대상금액의 22%가량인 7276억원이 전환됐다. 이들의 이자 경감 효과는 연간 296억원으로 분석됐다. /조다혜기자 ydh@

발가락 깨물어 점 본다?

metro HongKong

충칭시 60대 노인 눈길

중국 충칭시에 독특한 방식으로 점을 보는 노인이 있다. 손님의 손과 발을 깨물어 점을 보는 펑쩌쥔(67)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님의 손을 깨물고 무릎을 깨문다. 그 다음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을 깨문다. 그의 점집 옆에는 '펑쩌쥔 사주팔자를 봐주고 병을 치료해 드립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다.

펑쩌쥔은 이런 방식으로 점을 보는 것에 대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점술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처 다른 점쟁이들은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지식이 필요한데 역겨운 방법으로 점을 보고 있다.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기꾼"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인 다건은 "그가 이상한 방법으로 점을 보면서 돈도 1위안(약 원)밖에 받지 않자 나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펑쩌쥔은 1위안을 내라고 하지만 점을 본 사람들은 대개 ~20위안 정도를 그에게 준다. 한 손님은 "그가 점을 잘 보는지 궁금해서 찾았다.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펑쩌쥔의 딸은 아버지에 "남들도 가족도 모두 무시한다"며 점보는 일을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사위는 2년 전 펑쩌쥔이 노인성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껴 밖으로 다가다가 점을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에볼라 감염환자 '특별 병실'

metro France

프랑스 리옹의 한 병원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위한 특별 병실이 만들어졌다.

리옹의 적십자병원은 P4라는 이름의 특별 병실을 만들었다. 이곳은 론알프스 및 오베르뉴 지방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치료 공간이다.

크리스티앙 시디악 박사는 "P4 병실은 철저히 고립된 공간으로 같은 전염병을 가진 환자가 최대 두 명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치료 공간인 만큼 무균 병실이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치료 준비를 하기 위해 간호사 두 명이 동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티앙 박사는 "환자와 함께 병실로 들어가기 전 담당자는 전용 마스크, 안경, 위생모, 신발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온 몸을 보호하는 특별 위생 세트는 하나에 40 유로(약 5만4000원)로 저렴한 편이다. 현재 리옹 적십자병원에선 에볼라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해도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 평균 두명 정도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미르 빌랴실드르 불랑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美 모술댐 인근 또 폭격

5차례 공습 IS무기 파괴 · 핏물 아이스버킷 등 사이버전도 '후끈'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모술댐 인근에서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전투기와 무인기로 폭격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5차례 폭격으로 IS의 군용 차량과 무기를 파괴했고 주요 건물에도 손상을 입혔다"며 "미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IS는 이라크 제2 도시인 모술을 지난 6월 장악했다. 현재 이라크군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곳에 있는 모술댐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댐이다.

이날 이라크군은 바그다드 북부의 아메를리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아메를리는 시아파 투르크멘계의 거주 지역이다. IS가 장악한 뒤로 주민 1만5000명이 포위된 상태다. 이날 IS는 레바논 군인을 참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IS는 다른 레바논 병사 9명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함께 내보내면서 사흘 안에 IS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이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IS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동맹국이 함께 발벗고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단독 공습하는 것으로는 적을 격퇴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모두 힘을 합쳐야 IS라는 암덩어리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미 10여개 국가가 같은 목표를 위해 뭉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IS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불꽃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IS가 전 세계 무슬림의 지하드(이슬람 성전) 참전을 촉구하자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사이버 전쟁은 국무부의 '대테러 커뮤니케이션 전략센터'가 담당한다. 이 센터는 IS 대원이 올린 글에 "IS 대원은 범죄자로 죽거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등의 댓글을 달거나, IS의 잔혹 행위를 핏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얼음물 샤워)로 풍자한 만평 등을 올리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이버 공간에서 소규모 접전이 수천 건 동시다발로 벌어진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이 IS를 저지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이라크 북부 시아파 투르크멘족 여성과 아이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구호물자를 실은 헬기가 도착하자 물라 타려고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전쟁 반대! 영국 웨일즈 뉴포트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시민이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포트에서는 오는 4~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다. /로이터 연합뉴스

EU, 러시아에 '최후통첩'

우크라 군사개입 중단 안하면 1주일내 추가제재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내렸다. 1주일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지원을 철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헤르만 반 롬파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직후 "긴급 예비작업을 통해 1주일 내 제재안을 제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가 1000여 명의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면서 러시아 정부에 불법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코스닥
2068.54 (-7.22)	570.20 (-0.04)
금리	환율
2.51 (-0.02)	1014.00 (-0.30)

KT, '오픈샵' 모바일 홈페이지 문열어 KT는 올레닷컴 '오픈샵'의 모바일 홈페이지(m.openshop.olleh.com)를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KT 제공

아반떼 판매 천만대 '눈앞'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1000만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차는 1990년 10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해 1995년 내수명을 '아반떼'로 바꿨으며 8월까지의 예상 실적치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판매 대수가 987만여 대로 집계됐다. 첫 출시 후 24년만인 오는 10월에는 전 세계 10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가 판매된 차량은 토요타 코롤라, 폭스바겐 골프 등 10개 모델에 불과하며 한국차로서는 사상 최초로 달성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일본 등에 비해 짧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정혜인기자

아반떼 글로벌 판매 천만대 판매달성 기념 고객감사 프로모션

로또복권 제61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8	11	18	41	44	3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75,831,209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77,461,561
3등	5개 숫자 일치	1,511,53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화공감빌딩(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9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24일 등록(서울 아00039) 서울특별시 가00098

건설사 워크아웃, 실효성 있나

Issue&View 건설 정책 이대로 좋은가

재무구조 개선한다며 채권 회수 급급 자산 다 까먹고 법정관리·파산행 늘어

/박선옥기자 psok@metroseoul.co.kr

시공순위 25위의 동부그룹 계열 동부건설이 최근 워크아웃 추진설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건설업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은 커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으로 치닫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주도, 정상화에 도움 안 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실패 후 법정관리로 넘어간 건설사는 남광토건, 벽산건설, 우림건설, 중앙건설, 쌍용건설, 신일건업, 한일건설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벽산건설은 법정관리까지 거쳤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들에게 기업개선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2009년 워크아웃이 시작된지 6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모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워크아웃을 졸업한 곳은 이수건설이 유일하다.

오히려 금광기업, 대우산업개발, 삼부토건, 삼환기업, 임광토건, 풍림산업 등 6곳은 워크아웃을 포기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정상화가 완료됐다. 이들 기업에게도 워크아웃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인 채권은행과 채무자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이 주도하다보니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황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채권단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 빚부터 갚게 하고 있다"며 "빈껍데기 상태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다보니 다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A건설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는 단순자산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임에도 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앞세워 매각하곤 한다"며 "땅이 없다보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해 새로 땅을 사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비 지원 보증 '소극적'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지 못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자산처분에는 적극적인 채권단이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는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며 신규수주 및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워크아웃 상태의 B건설사 회사채권은 "회사 내부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도 채권단 심의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곤 한다"며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도 자금지원은 녹록지 않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일반 기업이 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법정관리를 졸업한 C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싼 이자와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럴 거면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가 있지 않나"며 "빚이 많아 문제가 생긴 기업에 빚만 더 늘어나는 처방만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국내 공공·민간사업 및 해외사업 수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크아웃 건설사라는 낙인 때문에 수주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보증도 쉽지가 않다.

지난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D건설사는 채권단에서 지급보증을 거부한 탓에 싱가포르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확실시됐던 2500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와 7588억원 규모의 공항공사의 최종 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안전 관리를 위해 비행기의 핵심인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세계최고 안전 항공사 목표

올 들어 해외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한 교육과 훈련·점검으로 안전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선 총괄사장 직속의 안전보안실을 설치해 사고 방지를 위한 총체적 계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과 보안과 관련한 전담부서인 안전보안실은 지난 1975년 항공운항본부(현 종합통제부) 산하 안전조사실로 시작해 1976년 안전관리실이라는 독립부서로 격상됐다.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항공 안전과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안실은 미국 델타 항공사로부터 항공안전 관련 컨설팅을 실시해 규정, 절차의 통일화 및 표준화, 비행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은 항공 산업에 내재된 항공사고 위험요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찾아 관리해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다.

대한항공은 안전 부분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farmer@

"스팸전화 오전11시 최다"

하루 중 스팸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오전 11시'로 나타났다. 스팸전화 유형별로는 '대출권유' 전화가 가장 많았다.

31일 KTCS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접수되는 스팸신고 건수는 일평균 651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시간대별 평균 2674건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스팸차단앱 '후후'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팸전화 신고 2213만2336건을 시간·요일·스팸유형·시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스팸전화 신고가 2배 이상 높았다.

스팸전화 유형별로는 '대출권유' 전화가 총 452만 건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불법게임 및 도박(278만건), 텔레마케팅(263만건), 휴대전화 판매(261만건), 성인유흥업소(247만건) 등의 순이었다.

시기에 따라 신고가 급증하는 스팸유형도 다양했다.

설 명절이 있던 올해 1월과 휴일이 많았던 5월에는 불법게임과 도박 관련 스팸신고가 갑자기 증가했다. 2월에는 텔레마케팅 금지로 연계 대출 권유 스팸신고가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리운전 관련 스팸신고는 지난해 말부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재영기자 ljy403@

한일 축제 한마당 10th Anniversary

2014년 9월 14일
(SUN) 10:00~19:30
COEX 전시장 C홀

사회자

후지이 미나 | 오카와 노부코 | 김재홍 | 한상헌 | 강승화

1부 출연진

김덕수 사물놀이패 | 히가미교에이키어 히가미 다이코 | 영동난계국악단 | 누마타 모에카

2부 출연진

아와오도리 | 넘버원 코리안 | 고야 에이사 |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기쿠노카이 | 악동 | 오오리 야스시 | 비밥

3부 출연진

요시다 료 | 와카사카 마유 | 아나키부 | 류 | CROSS GENE

우에노 주리 | 하나코리아 | 야오보리 | 아키타 간토 | 진도강강술래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 실행위원회 |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 운영위원회

/BC카드 제공

저금리 시대, 인컴펀드 뜬다

1년간 수익률 10.4% … 북미 증시 투자 관심

배당주와 채권, 부동산 등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인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인컴펀드 31개는 지난 1년간 10.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11.16%)와 해외주식형펀드(11.59%)를 소폭 밑돌지만 국내채권형펀드(4.06%), 해외채권형펀드(6.83%)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인컴펀드는 배당주의 배당, 채권의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 다양한 자산에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1년간 성과가 가장 좋은 펀드는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주혼-재간접)종류A'로 15.59%을 냈다. 다음으로 '슈로더월지급아시안에셋인컴(주혼-재간접)종류A', '프랭클린템플턴미국인컴자(주혼-재간접)'이 각각 15.52%, 14.61% 상승했다.

펀드 환매행렬 속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인컴펀드에는 자금유입이 지속됐다. 특히 북미 증시에 투자하는 인컴펀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일본을 제외한 아·태평양 주식혼합형 인컴펀드 5개에서 3200억원 넘게 자금이 이탈한 반면, 북미주식혼합형 인컴펀드 5개는 1400억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유진 펠라리티스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26일 투자전략 간담회에서 "주식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전략상 신흥시장 주식은 투자하지 않지만, 아시아 시장은 남미나 유럽보다 선행지표가 좋게 나와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과열 초기국면이어서 인컴펀드 선택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 과열 초기 단계에서는 신흥국 배당주 등 성장자산이나 하이브리드자산 비중을 늘이고 정부채, 투자등급채 등 안전자산 비중을 낮게 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특히 하이일드채권이 긍정적이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윤아 KG제로인 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의 증시 호조로 인컴펀드의 수익률이 꾸준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문희기자 h.kim@metroseoul.co.kr

카드혜택으로 알뜰한 추석을

한가위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지만 선물이다 차례상 등을 준비하다 보면 지갑은 순식간에 얇아진다. 꼭 써야하는 돈이라면 은행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알뜰하게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상차림 준비부터 선물, 주유,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과 무이자 등의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과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예컨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는 행사 대상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구매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5만원 이상 구매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준다.

씨티카드 고객은 7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지정된 추석 선물세트 구입시 최대 30% 할인 또는 구매금액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9일까지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이상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금액의 5%를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귀성길에 오르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BC카드는 9월 한달간 홈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금액을 달성한 고객 1만명을 추첨해 모바일 주유권을 증정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뱅버드)를 운영한다. 고객은 뱅버드를 통해 예금상담과 통장정리, 신권교환 업무가 가능하며 신권을 담을 수 있는 주석 복(福)봉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상아기자 · sa@[illegible]

매매 6억·전세 3억 수수료 싸진다

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편 내년 적용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주택이 흔해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에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김우리기자 [illegible]

싱글몰트 위스키 판매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3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 더 글렌리벳의 리미티드 에디션 '더 글렌리벳 가디언스 챕터'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 가계빚 감소… '나홀로 증가'

연 8% 이상 ↑ … 지난해 1021조4000억 달해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매년 8%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비원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봐도 지난 2008년말 723조5000억원던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했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됐다.

지난 2008년말 13조8000억달러한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0.7% 줄어 지난해 말 13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도 325조4000억엔에서 311조1000억엔으로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조5000억유로와 1조4000억파운드에서 1조6000억유로와 1조5000억파운드로 연평균 증가율이 0.5%씩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꼽고,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7개 주요 은행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7조7000억원에서 지난 28일 30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3조8000억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6%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정부는 LTV 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큼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계분 소득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민지기자 [illegible]

<사물인터넷>

"IoT로 장어 기르기 간단 해결"

SK텔레콤, 고창서 스마트 양식장 구축…'ICT노믹스' 첫 걸음

"생활이 편리해진 것이 최대 장점이죠. 요즘 같으면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한 민물장어 양식장. 29일 방문한 그곳은 다른 장어 양식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전국의 모든 장어 양식장이 상주 직원들의 수작업에 의존해 관리되지만 이곳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차별화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40개의 수조에서 60만 마리의 치어와 성어를 양식하는 이 사업양식장은 양식장 내에선 PC 모니터를 통해, 외부에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정준모(44) 삼양수산 사장은 "과거에는 직원들이 주기적(치어는 2시간, 성어는 4~5시간 간격)으로 장어양식장에 들어가 일일이 수조 상태를 점검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고를 덜었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정 사장은 "과거엔 온수공급기·산소공급기 등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집단 폐사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번 스마트 양식장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심적 부담감을 덜었다"면서 "덕분에 야간조 운영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삼양수산은 수조 1개당 1만 마리가량의 장어를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양식하고 있다. 고밀도 순환여과식은 면적과 용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물의 온도·산소 공급 등 관리 기술이 까다롭다. 장어 양식에서 온도나 산소공급 등이 장어가 자라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진동에 민감한 장어는 양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 탓에 장어 양식장 내부도 어두웠다. 깜깜한 양식장 내부에서 진동에 민감한 장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40여개 수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수조마다 설치된 센서 컨트롤러였다.

센서 컨트롤러는 수조별 수온·산소량·수질 측정용 센서를 통해 수치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인 'SUN'을 통해 수조별 데이터를 모아 LTE 기반으로 IoT 플랫폼에 전송해 준다. 사용자는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수조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알람이나 경고메시지를 통해 즉시 알려준다.

SK텔레콤과 비디와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민물장어 양식장의 수조관리방식을 최신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개선한 것이다. 지난 5월 하성민 사장이 발표한 'ICT노믹스'의 첫 발을 뗀 것이다. ICT노믹스란 모든 사물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디지털화된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융합·재편된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뜻한다. 이번 스마트 장어 양식장 구축 사업은 IoT와 전통산업간 융합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미래산업으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이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SK텔레콤과 비디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장어 양식장의 센서 컨트롤러는 수조별 수온·산소량·수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해당 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로 전송된다.

이 기술로 장어의 폐사량이 0%에 가까워지면서 양식장의 수익 증가도 기대된다. 지난해 연 매출 20억원대를 기록한 삼양수산은 장어 폐사량이 5~10% 가량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엔 폐사량이 줄어든 만큼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IoT 기반 스마트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내년 초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센서 고도화·감시 기능 강화 등 작업을 거쳐 전국 450여개의 국내 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토요타, 레저비클시장 '다크호스'로

여가인구 증가 원인…시에나·RAV4, 스테디셀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RV(레저 비클)의 인기가 뜨겁다. 오토캠핑의 인기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덕분이다. 토요타는 지난 연말 FJ 크루저 한정판매를 시작으로 4륜구동 시에나 추가, RAV4 가격인하 등으로 RV 시장 공략에 나서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009년 토요타 브랜드의 국내 출범때 단일모델이었던 RV는 2011년 미니밴 시에나, 2013년 뉴 제너레이션 RAV4, 지난해 12월 말 오프로드 FJ크루저 한정판 판매를 시작하며 다양한 라인업으로 완성됐다.

라인업이 확충되면서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토요타 RV/SUV 판매비중이 2012년 8%에서 2013년 22%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출시 직후부터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한 스테디셀러 시에나와 RAV4의 역할이 크다.

토요타 RAV4

특히 시에나는 미니밴의 탄생지 미국에서 첫 출시할 당시 [illegible] '자녀통학을 위한 주부용 차'라는 미니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주행성능으로 화제를 모았다.

레저용 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토요타 시에나

이후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과 IIHS(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을 받았으며, 2014 켈리블루북 잔존가치평가 미니밴 부문 1위와 톱12 패밀리카 선정, 2013 JD파워 내구성평가 미니밴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을 통해 뛰어난 편의성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미국 최고 자동차평가 기관인 켈리블루북의 에디터들은 시에나를 "승객의 편의를 가장 많이 고려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완벽한 미니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출시된 3세대 시에나 역시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즉각적인 드라이빙퍼포먼스, 오토만 시트 등이 어필하면서 출시 이후부터 판매목표를 초과해 국내 수입 미니밴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타는 올 초 새롭게 4륜구동 모델인 2014년형 시에나 3.5 AWD를 출시하며 미니밴 시장 공략에 힘을 더했다. 시에나 3.5 AWD에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일정거리 이상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Run Flat)가 장착돼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에나의 인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동급 경쟁차종의 새로운 모델 출시로 주춤한 듯 보였지만, 4월부터 다시 판매가 증가해 국내 수입차 미니밴 시장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illegible]

삼성전자, 'IFA 2014'서 새 AV 공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IFA 2014'에서 신규 오디오비주얼(AV) 제품을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세계 최초 TV 매칭 커브드 사운드바 'HW-H7500·H7501' 시리즈와 무선 멀티룸 오디오 추가 라인업 'M3'다.

삼성 커브드 사운드바 'HW-H7500·H7501' 시리즈는 커브드 오디오로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에 이어 오디오비주얼(AV)에서도 커브드 제품을 선보이며 '토탈 커브드 솔루션'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삼성 55인치와 65인치 커브드 초고화질(UHD) TV와 최적의 조합을 이루며 스탠드와 벽걸이형 모두 가능하다. 특히 벽걸이로 사용할 경우 기존 TV 스탠드의 나사 홀 사용이 가능해 벽에 별도의 구멍을 뚫지 않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커브드 TV와 조화를 이룬다.

8.1채널을 지원하는 'HW-H7500·H7501'는 기존 직선형 사운드바에 좌·우 2개의 스피커가 추가돼 좌·우·앞 세 방향으로 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음감은 더욱 공간감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커브드 사운드바 하나만으로 압도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선 멀티룸 오디오 시리즈 'M3'를 선보인다. 삼성 무선 멀티룸 오디오는 전원 연결과 전용 앱 설치만으로 무선으로 오디오나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동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M3'는 기존 라인업의 주요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담한 크기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릴 예정이다.

장영덕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커브드 사운드바를 통해 토탈 커브드 솔루션을 완성했다"며 "업계 리더로 책임감을 느끼고 까다로운 소비자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이마트, 명절품목 할인판매 3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각종 주요품목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피해, 당황말고 '1332'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오가는 인파로 발 디딜틈 없는 지하철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서민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상황시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7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의 서민 밀집지역 인근 지하철역을 찾아 소비자보호 유인물과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서울에서는 주로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27일 신림·강남·삼성·잠실역, 28일 신도림·신촌·홍대입구·서울역 등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하철역은 서울시 통계상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라며 "특히 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퇴근 시간대를 공략해 캠페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알면 힘이 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금융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이라는 소책자를 나눠줬다.

이번 홍보물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없이 1332를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비자를 통해 신용카드 분실·위변조,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대응요령을 알려준다. 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채권추심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권리와 유의사항도 함께 다뤘다.

특히 27일 강남역에서 진행된 가두 캠페인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장이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가두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일반 시민에게 금감원의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인 1332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책자와 경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소위 '멘붕'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상비약처럼 항상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황미영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 같은 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희기자 hjkim1@metroseoul.co.kr

"영국 첫 금리 인상, 내년 1분기 전망"

금융가 사람들

■ 이은주 대신증권 연구원

영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를 놓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회복 강도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 경제는 올해 2%, 내년 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주(사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영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첫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보다 빠른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영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며 "1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고용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는 감소하는 등 2012년 하반기 이후 고용 개선이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 회복은 또다시 BOE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BOE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OE가 최근 공개한 8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9명의 통화정책 위원 가운데 2명은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BOE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깨진 것은 2011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 고용시장이 회복됐지만 미국과 영국의 금리상승 압력은 비슷하다"며 "영국의 첫 금리인상 시기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1분기보다 더 빨라질 우려는 낮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현지기자 mine@

추석연휴에도 분양열기 뜨겁다

주간분양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꺾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대거 청약에 들어간다. 단 연휴를 맞아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없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 접수 12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5곳의 일정이 계획됐다.

SH공사는 1일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을 진행한다. 세곡2지구 6·8단지는 전용면적(이하 동일) 39~59㎡ 130가구로 이뤄졌다. 내곡지구 2·6단지는 39~49㎡ 477가구 규모다.

현대산업개발은 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일대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체 1596가구,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세류역에서 도보 16분 거리이며 이마트·롯데마트·NC백화점·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투시도.

이날 LH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8-1블록과 A9블록의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 중 A8-1블록은 26~51㎡ 722가구 규모다. A9블록은 36~51㎡ 483가구 규모다.

EG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지구 7블록에 75~76㎡ 513가구 규모로 짓는 'EGthe1' 아파트도 같은 날 청약에 돌입한다. 39번 국도를 통해 포승국가산업단지·고덕신도시 등으로 접근이 쉽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IC가 인접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우남건설은 3일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용인시청 인근에서 '용인역북 우남퍼스트빌'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5년) 지난 이후 분양 받을 수 있다. 67~84㎡ 총 914가구로 이뤄졌다. 용인경전철 김량장역을 이용 가능하다.

같은 날 금성주택은 세종시 2-2생활권 P4구역 '세종에미지'의 청약을 실시한다. 총 672가구 60~121㎡로 구성된다.

/박선옥기자 ssgg@

식품산업協, 'FI KOREA 2014' 개최

식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종합 교류의 장이 될 '2014 국제식품소재기술전(FI KOREA 2014)'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식품소재기술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및 전문전시회로,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글로벌컴스가 주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전시회는 150개 업체 200부스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국 소재 관련 기업의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컨퍼런스에는 사전등록자가 300여명을 넘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3대 연구소인 NIZO 연구소 대표와 TNO 등의 참여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학균기자 kim@

푸조 308, 폭스바겐 골프 뛰어넘나

준중형 시장 도전장…6년만에 풀 모델 체인지
강렬함 버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승부 걸어

최근 국내 수입차 판매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00cc 이하 준중형차와 소형차의 인기다. 이들 모델의 수입차시장 비중은 지난 7월 말까지 55%를 차지하면서 전년도보다 31.7%포인트나 늘었다.

폭스바겐 골프가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이 시장에서 푸조는 307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2008년에는 308로 모델 체인지가 됐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6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 된 뉴 308이다.

뉴 308은 구형보다 차체길이를 20mm 줄인 반면 휠베이스는 10mm 키웠다. 모델 체인지가 이뤄지면서 차체가 커지는 일반적인 공식을 깬 방식이다. 차체길이는 줄었지만 차체는 더 크고 야무져 보인다. 이전까지의 푸조 모델들이 '펠린 룩'이라 부르는 특유의 강렬한 인상이었던 반면에 뉴 308은 앞 오버행을 줄이면서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인테리어는 뉴 308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핸들을 대폭 줄이고 운전 편의성을 높인 아이 콕핏(i-Cockpit)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 사이로 계기반이 보이는 방식을 벗어나 뉴 308은 계기반을 위쪽에 배치하고 스티어링 휠을 그 아래쪽에 배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와 계기반을 번갈아 볼 때 시선의 이동을 줄일 수 있다.

센터페시아는 대부분의 기능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9.7인치 모니터가 장착돼 있다. 조작은 매우 쉽다. 아이콘을 따라 스크린을 터치하면 금방 익숙해진다. 다만 블루투스 기능은 잘 작동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시트로엥 그랜드 피카소를 시승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푸조-시트로엥의 모델들은 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뉴 308에 얹은 150마력의 디젤엔진은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최대토크 37.8kg.m를 뿜어낸다. 경쟁차종인 폭스바겐 골프는 최고출력이 같지만 최대토크는 32.6kg.m로 뉴 308보다 낮다. 뉴 308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기존에 푸조 모델들에 탑재됐던 MCP 변속기 대신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는 점이다. 연비는 좋지만 변속 충격 때문에 거부감을 줬던 MCP 대신 탑재된 자동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각이 일품이다. 낮은 엔진회전수에서 최대토크를 내는 엔진과의 궁합도 훌륭하다.

307의 차체높이가 1530mm, 구형 308이 1500mm인 데 비해 뉴 308은 1470mm로 낮아졌다. 덕분에 공기저항을 줄이고 핸들링을 향상시키면서 고속에서의 주행안정성도 대폭 강화됐다.

뉴 308의 표시연비는 도심 13.4km/ℓ, 고속도로 16.4km/ℓ다. 폭스바겐 골프가 도심 15.0km/ℓ, 고속도로 19.5km/ℓ인 데 비해 떨어지는 수치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3:7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2.5km/ℓ를 기록했다.

푸조 뉴 308은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인테리어 품질, 안정된 주행성능이 돋보이는 차다.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진짜 차를 알고 즐기는 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 가격은 악티브가 3390만원, 펠린이 3740만원으로 골프(3050만~3750만원)에 비해서는 선택 폭이 좁다.

/ferrari@metroseoul.co.kr

▲준중형 차 308: 세련된 디자인과 풍부한 편의장비를 갖췄다. 골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평점 ★★★★

크라이슬러, 리프레시 서비스

크라이슬러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크라이슬러 및 지프 모델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2014 크라이슬러-지프 리프레시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1년8월31일 이전 등록차량 보유고객이 대상인 이번 캠페인은 전국 크라이슬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중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각 브랜드별 전문 테크니션들이 최첨단 진단 장비

인 와이텍을 이용해 세심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유상수리 고객에게 크라이슬러의 순정 부품 브랜드인 모파 부품과 휠, 타이어, 모파 순정 액세서리, 컬렉션 등이 20% 할인 제공된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올뉴모닝		750	805	860	910
쉐보레	스파크		580	700	710	850
현대	아반떼MD		1,140	1,210	1,300	1,450
	아반떼HD	840	930			
	YF쏘나타	1,230	1,370	1,470	1,610	1,640
기아	K5		1,400	1,560	1,650	1,730
현대	그랜저HG			2,070	2,330	2,740
	그랜저TG	1,190	1,280	1,350		
기아	스포티지R		1,550	1,750	1,910	2,080
	뉴스포티지	880	970			
쌍용	코란도C			1,580	1,740	1,9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기아차, 라이프스타일 광고 화제

최근 시작된 기아차의 'Designed by K' 캠페인은 기존에 자동차가 시도하지 않던 프레임과 콘텐츠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자동차라면 신차의 특장점이나 제원, 외관을 알리기 위해 광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데 머물러 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차종을 K시리즈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도로 위의 자동차가 아닌 도시의 문화, 사람, 트렌드와 공명한다는 가치하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자연스레 고객을 참여시키는 독특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한달여만에 영상 조회수가 120만뷰를 넘고,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새로운 팔자 경험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 kia.com에 접속하면 캠페인 의도와 K시리즈가 지향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포토그래퍼 준초이의 시각에서 본 K7의 편블랙의 맛있는 잔치, 칸느 단편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문병근 감독이 그린 K5의 프로페셔널한 라이프 스타일 등 차종과 주제를 바탕으로 쉽게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경험한다.

이중 우리나라 톱모델인 한혜진 씨도 포함된 K시리즈의 다양성을 세 편의 캐선화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젊은층이 타겟인 K3는 진정한 스마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의 레이저그라운드, 스마트폰을 통한 폰스택게임 등의 새로운 문화를 선보인다.

9월초 방송된 K3 광고도 론칭 2주년 기념 특별 제작된 K3 와치의 스마트함을 스타일리쉬한 영상미로 표현했다. K3 와치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키 기능이 탑재된 시계다.

K3 와치는 한정판으로 제작됐고, 9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증정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모델 한혜진이 출연한 기아 K3 광고

야당, 진정 국민여론을 외면할 것인가?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1야당으로 존재감마저 상실할 만큼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걸친 여야합의를 깨면서 이제 진퇴양난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45일간 단식을 해온 김영오씨가 지난달 28일 단식을 중단하고 문재인 의원도 동조단식을 그만뒀다. 장외투쟁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어정쩡하다. 당내 온건파 의원15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장외투쟁에 나선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제 야당은 내분의 씨앗을 키우며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7.30 재보선 참패 후 한 달도 안 돼 만신창이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섯 달째 국회를 공전시켜 이제 국민의 분노와 염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에 여당보다는 야당에 보다 많은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국민여론에서 드러났다. 경제살리기를 뒷전에 미뤄둔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각종 여론조사결과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67.7~78.5%나 나왔다. 또한 국민 3분의 2에 해당되는 64.5~66.3%가 "야당의 장외투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만 보아도 야당의 선택은 다른 길이 안 보인다. 우선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법을 다루는 것이 순리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제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간곡한 주문을 했다. 이어 불교계의 원로 월주 스님은 "세비를 반납하든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일갈했다. 대다수 국민의 마음도 이와 다른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54일간의 천막투쟁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난 3월 39.7%에 달했던 지지율이 지금 23.2%까지 내려간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야당의 추락은 무엇보다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당내 갈등과 장외세력에 휩쓸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새 정치를 선창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왜 침묵하는가? 그의 정치 실험은 끝났는가? 야당의 원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야당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투쟁적인 정치노선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국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로 무장되어 희망이 있다. 당장 국회로 돌아와 '민생개혁' 추진에 동참하는 길이 살길이다.

포토프리즘 재래시장 '북적'

추석을 앞둔 3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에 쓸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구글의 '도전'이 빛나는 이유

뉴스룸에서

이국원 <경제산업부 부장>

"장기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무조건 밀고 나갈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200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구글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다. 지난 10년간 구글은 편지에 쓴 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무인 자동차, 대형 풍선을 띄워 오지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룬' 등 다소 황당해 보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글의 매출은 상장 전해인 2003년 14억7000만 달러(약 1조4900억원)에서 지난해 598억 달러(약 60조6000억원)로 40배나 껑충 뛰었다.

구글이 또 한번 무모한 도전에 나섰다.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벤처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캠퍼스를 세운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벤처붐이 한창인 일본,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를 놔두고 구글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구글은 런던 캠퍼스의 경우 개관 후 1년 만에 274개 스타트업이 3400만파운드(약 57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캠퍼스 서울'의 성공을 자신했다. 국내 예비 창업자 전용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멘토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자신들이 만든 안드로이드의 개발자는 물론 라이벌인 애플의 iOS 개발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인배' 다운 모습이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IT시장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소프트웨어 인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개발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투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이라도 금고에 쌓아둔 엄청난 현금을 풀어 구글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는 없을까.

구직자들에게만 도전정신을 강조할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스스로도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퇴화를 우려할 뿐이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미국이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조짐이다. 이는 아마존이 드론을 개발하면서 불거졌고, 최근 호주에서의 시험비행에 성공한 구글의 가세로 탄력을 받았다. 이 결과 조종사의 통제를 받아야 했던 무인기는 한 층 더 운용이 수월해진 짐꾼 물체로 거듭났다. 짐작하건대 운항이 본격화되면 항공기가 개발되고 지금까지 운항됐던 양보다 더 많은 횟수의 비행이 1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LA타임즈가 무인 자동차 시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벤츠는 이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조망됐다. S500의 경우 100km 거리를 무인으로 주행하는 데 성공했으며, 운행 동안 폭이 좁은 도로와 코너에서 탁월한 성능과 안전성을 보였다. 구글은 무인 자동차에도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구글카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데 주행 능력보다는 안전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무인 자동차에 대한 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이라 모르기는 해도 무인자동차 시대는 자동 기어 시대의 혁신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다.

무인기와 무인 자동차 시대의 개막은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무인기는 항로에 대한 하늘에 대한 교통망 설계 및 관련 규칙, 연관 산업을 폭발적으로 키우게 된다. 무인 자동차 역시 이제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도시 교통 체계의 대부분을 근간부터 수정시킬 수밖에 없다. 또 양쪽 모두 교통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져야 되는 기준을 모두 새롭게 만드는 게 불가피하다. 즉 무인과 사람의 동반 생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문제부터 쉽지 않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단순하다. 내 물건을 싣고 날아오는 무인기를 어디에 착륙시켜 받을 것인가, 착륙시키는 것과 착륙장에서 내 집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다. 무인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차의 내부를 무엇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무인기, 무인 자동차로 인해 잃어버리는 건 없는지. 핸드폰을 비롯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맹신으로 잃어버린 건 무엇인지. 아날로그적 생활에 대한 향수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의 본질을 태생적으로 가졌던 것에 대한 퇴화를 우려할 뿐이다. 기우일까. 인간의 DNA가 백 년이면 변화한다는데 지금의 속도로 보면 그 절반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illegible](www.[illegible].co.kr) 대표

소비자 금융교육 필요

기자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광고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재밌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상품 광고는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연구자가 제시했다.

광고는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상품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를 소비자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광고를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을 알린다는 발상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충분한 금융지식을 갖지않은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걸 알려준다.

자동차나 카메라를 광고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다. 제품을 사기 전 매장에 들러 여러 차량을 시승해보거나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한 뒤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융상품만은 유독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소비자의 뇌리에 남는 것은 그 상품이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뿐이며 상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마이동풍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금융상품을 소비하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투자 외면으로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장세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광고를 통해 금융지식을 알리자는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소비자를 시장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급호텔, 감사의 마음 담은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 선봬

특급호텔들이 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호텔 내 전문가들이 직접 엄선한 재료와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가치를 더했으며 다채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제품도 눈에 띈다.

먼저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최상등급의 특선 갈비세트(사진)와 특선 한우가 굴비세트, 또 조리장 특선세트를 준비했으며 와인과 샴페인 선물세트도 판매하고 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고가세트부터 브론지 같은 계선 제품과 그릴 벨트 등의 생활 제품을 내놓았으며 호텔에서의 숙박과 레스토랑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다.

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총지배인, 주방장 등이 상품을 선택해 구성한 추석 선물세트를, 롯데호텔서울·델리카한스는 보내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품격을 빛내줄 명품 와인을 추석 선물세트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더 플라자에서는 고급 햄부터 살속갈비까지 약 8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도 육류와 어류,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물로 구성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는 슈퍼푸드로 널리 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연어세트 등 특급 호텔의 품격은 담았지만 가격의 거품을 뺀 실속 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영국 명차 선물세트, 와인 등을 판매하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알찬 구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과 바우처를 비롯해 지난해 판매되던 선물세트를 대폭 업그레이드했으며 강원도 특산물을 추가해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제주산 은갈치와 건옥돔, 완도산 전복 등 각 산지의 특산물과 함께 정가리산 거위털 침구세트 상품을 선보였으며 The-K호텔서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모아 자유롭게 컴피세트를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플라자호텔은 갈비세트 등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세계 와인세트, 한국 전통 명주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황제의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최고급 상품만으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호텔 시그니처 레스토랑들의 대표 상품들을 선별해 담은 브라바 엉 선물세트를 판매 중이며 리츠칼튼 서울은 지리산 산양산삼과 산꿀 자연송이 등과 같이 부모님을 위한 효도 상품으로 정성을 담았다.

게다가 세종호텔은 호텔 주방장과 전문 소믈리에가 직접 준비한 추석 명품 선물세트로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우리는 유모자 패밀리'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퀴니 퀸 선발대회'에 참석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 가족이 포토세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개그맨 추대엽 엄경천 이정수 정성호 어윤웅 백봉기, 배우 오유진 여현수 김소현 조은숙 신소현 윤지민 권관 조용기 이미니, 가수 박지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손진영기자 son@

의료환승관광상품 본격 가동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인천의료관광재단 협약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인천공항공사,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환승관광상품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교통체증 없이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병원(인하국제의료센터·지인건강증진센터·국제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과 피부 웰니스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검진에는 스트레스와 중금속 검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환승 시간을 활용한 제아 미백과 스케일링도 가능하다.

김세만 관광공사 의료관광센터장은 "이번 상품은 한국의 의료관광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재방문과 다음 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계기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특화 상품을 개발해 환승관광상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황재용기자 hsoul38@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

/손진영 기자 son

<인터뷰> 다나카 마사시 행사 운영위원장

최대 한일문화교류행사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이 9월 14일 코엑스 전시장 C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2005년 9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행사의 총책임자인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은 "일본을 대표하는 '마쓰리(축제)'를 한국 국민에게 소개하고 사물놀이 등 한국의 대표적인 놀이를 일본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올해 축제의 테마는 '축제 10년 꿈을 싣고 또 점프'다. 다나카 위원장은 "1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희망의 꿈을 담아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호프(hope)' '스테프(step)' '점프(jump)' 세 주제로 나눠 열린다. 9월 13일 합정역 메세나폴리스몰 중앙광장에서 열릴 사전행사로는 가수 윤하, 와키사카 마유 등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공연을 펼친다. 한 걸음 나아가는 전야제에서는 냉정과 열정 사이 OST를 작곡한 피아니스트 요시마타 료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1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본식 행사는 '점프'를 뜻하며 총 3부로 나눠 김덕수 사물놀이패, 고야 에이사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우에노 주리, 크로스 진 등이 참석한다. 공연 외에도 일본 컵라면이나 시에다 일본술을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그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공연으로 '요사코이 아리랑'을 꼽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과 일본의 민요 '요사코이'를 합친 노래에 맞춰 모든 참가자들이 국경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피날레 공연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공연에 대해 다나카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한일 양국의 문화를 비빔밥처럼 표현한 것이 정말 좋았다"며 "올해는 김덕수 선생이 일렉트로닉으로 편곡해 더 흥겨운 무대를 연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 속담에는 '꾸준한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마치 마라톤처럼 내가 갖고 있는 바톤을 다음 세대에 건네주고, 이것이 꾸준히 20년, 30년 이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희망을 밝혔다.

/정혜인기자 hjung@metroseoul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카카오톡 친구맺고
카톡대화상담 받으세요!
가을맞이 여행제안!
단풍놀이
어디까지 가봤니?
국내 대표명소부터 가까운 나라 중국&일본까지
가을의 낭만을 찾아 떠나보세요!

실속 식품 선물세트 인기

김치·과일잼·연어 캔 등 보편-실용성 선호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선물 걱정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천차만별인 상대방의 취향을 생각하다보면 머리가 아프다. 수많은 추석 선물 세트 가운데 어느 가정에서나 만족할 만한 실속 선물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상FNF 종가집의 김치 선물 세트(사진)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별미 김치와 프리미엄 김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로는 제주 보송포 멸치로 장시간 잘 삭힌 액젓을 사용해 담근 '궁중명품 포기김치'와 구기자를 적절 우려 만든 '궁중명품 구기자 백김치'를 선보였다.

대상은 청정원과 대상웰라이프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1만5000원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명절에 두루 쓰임새가 많은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 고급유 세트는 8600원 대부터 만나볼 수 있다.

동원F&B는 이색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연어캔을 고급스럽게 담은 '동원연어 명작세트'와 프리미엄 김 세트, '명장지선'을 준비했다. '연어 명작세트'는 고급 연어 어종인 '코호 연어'로 만든 동원연어를 고급스러운 심지에 담은 프리미엄 연어 캔 세트이다.

복음자리는 보관이 편리한 과일잼, 과실차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 12종을 출시했다. 자사 잼 제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딸기잼과 포도잼 시과잼으로 구성한 '복음자리 잼1호'와 딸기잼과 포도잼을 세트로 만든 '복음자리 잼3호'를 내놨다.

사조해표는 소비자들의 실속과 만족도를 극대화한 복합 구성의 '안심 특선세트'와 '고급유 선물세트'를 주력 제품으로 강화했다.

안심따개를 적용한 '사조참치 안심따개'와 국내 캔햄 업계 최초 100% 국내산 돼지에 통살을 넣어 만든 프리미엄 캔햄 '안심팜', 해표 고급유·참기름으로 구성된 실속 있는 2~4만 원대 구성의 '안심 특선세트 13호, 20호, 52호'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실용 만점의 아이템으로 구성한 선물세트 60여종을 선보였다. /[illegible]기자

롯데칠성, '인천 장애인 AG' 후원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지난달 28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성일)'와 공식음료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일 조직위원장과 박은기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 각 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롯데칠성음료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스태프 등에 음료를 후원키로 했다.

김성일 조직위원장은 "국내 최대 음료 회사인 롯데칠성이 장애인AG 후원사로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대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와 임원의 음료부문을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은기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은 "장애인AG에 음료부문 후원을 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8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공식음료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직후 김성일 조직위원장(왼쪽)과 박은기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외식업계 이색 콜라보

'치킨 쓴 콜라' '빵 쓴 샐러드' '머핀 쓴 커피'까지

최근 외식업계에 두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맛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메뉴 위에 또 궁합이 맞는 다른 음식을 얹은 이른바 '모자 쓴' 제품들이 관심을 끈다.

◆치킨과 콜라의 조합 '콜팝'

음료 컵에 미니 치킨이 수북이 쌓여있는 '콜팝'은 출시 당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 '모자 쓴' 상품이다. BHC치킨에서 특허 낸 제품으로 콜라 위 전용 치킨 용기를 올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식 대용으로 먹기에 적당해 중·고등학교 학생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는 치킨 대신 감자튀김을 올린 '후렌치콜팝', 치즈튀김을 올린 '치즈콜팝', 용량을 늘린 '왕콜팝'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빵 모자 쓴 '리코타 샐러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이탈리안 파스타 & 피자 '[illegible]'에서는 올 여름 '리코타 치즈 포도 샐러드'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리코타 치즈와 신선한 야채, 상큼한 포도가 어우러진 샐러드를 쫀득한 반달 도우에 싸 먹는 형태로 출시됐다. 새콤한 샐러드와 따뜻한 도우가 쉽게 닿지 않도록 접시 위에 살포시 얹는 형태다. 또 파스타 위 도우모자를 쓴 '씨그레또'도 인기이다.

◆머핀 모자 쓴 아메리카노

수제 머핀 전문점 미노만이 출시한 '햇머핀&커피'는 아메리카노커피 위에 머핀을 올렸다. 이름처럼 모자(hat)모양의 한 머핀을 커피 컵 위 뚜껑 대신 덮는 제품으로 컵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됐다. 한 손으로 머핀과 커피를 동시에 들 수 있어 이동하면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따뜻한 커피의 온도에 의해 머핀이 더 부드러워져 여성들에게 인기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택배마감 앞두고 선물 주문 폭주"

강강술래, 10만원 미만 정육세트 잘나가

택배사의 배송 마감일을 앞두고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최대 50% 할인 판매중인 명절선물세트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불황 여파로 10만원 미만의 실속세트 매출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5만원 미만의 한우사골곰탕과 쇠고기육포, 한우떡갈비 등 프리미엄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찾는 단체주문도 크게 늘었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e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대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에 할인 판매 중이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3만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1.7kg·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18만원) 등 한우프리미엄 세트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낸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600g·5팩·15인분)는 3만6800원, 소용량세트(350g·5팩·10인분)는 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쇠고기육포세트(12봉)도 5만1600원에 선보인다.

강강술래 측은 예년보다 덥고 이른 추석을 맞아 육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illegible] 이전보다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한 보냉가방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아이스팩(냉매제)의 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신선배송에 만전을 기했다. /[illegible]기자

'애플 맛 바나나' 드셔보셨나요?

전염병 걱정 없는 신품종 바나나 선보여

바나나 전염병 확산과 멸종 예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바나나 중 95%에 달하는 카벤디쉬 종을 위협하는 변종 파나마병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농장에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 역시 대부분이 '카벤디쉬' 품종이다.

이런 가운데 바나나 전문 다국적 청과회사 스미후루코리아(대표 [illegible])가 바나나 전염병에도 걱정 없는 자사의 프리미엄 바나나 브랜드 '네이처스 초이스'의 '애플바나나'와 '로즈바나나'를 선보였다. 최근의 바나나 전염병과 무관한 신품종이다. 독특한 영양과 맛, 식감을 자랑한다. /[illegible]기자

자연의 건강 성분, 약·치료제로 재탄생!

숙취해소제부터 당뇨병 치료제·위장약까지 다양

웰빙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유기농을 선호하고 원산지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까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제약업계에서는 건강에 좋은 식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효능을 대폭 강화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울금의 '커큐민', 숙취 해소에 탁월

일본에서는 숙취 해소를 카레로 한다. 카레의 주원료인 울금(강황)의 '커큐민'이란 성분이 일본 숙취해소제 시장의 80% 이상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울금의 숙취 해소 효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독은 특허된 제제기술을 통해 커큐민을 극소 입자로 만들어 체내 흡수율을 27배나 높인 숙취해소제 '레디큐(Ready Q)'를 선보였다. 용해율과 체내 흡수율을 높인 만큼 숙취 해소 효과가 빠르며 마시는 음료 형태의 '레디큐 드링크'와 젤리 형태의 '레디큐 츄'를 함께 출시했다.

◆사과,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영국 속담도 있듯이 사과에는 항암·노화 예방·피로 해소를 돕는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런 사과가 이제 당뇨병 치료 분야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는 사과껍질에서 추출된 플로리진에서 시작된 것이다.

1835년 프랑스 화학자 피터슨(Petersen)이 발견한 플로리진은 포도당 배출을 촉진시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응용·발전시켰으며 포시가는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하루 약 280㎉를 감소시켜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도 갖고 있으며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도 병용할 수 있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 받고 있다.

◆양배추가 약으로?

양배추가 위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매일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제 양배추가 약으로 태어나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위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바로

한국코와의 위장약 '카베진코와S정'이다.

이 제품은 항소화성 궤양인자로 알려진 양배추 유래 성분 'MMSC(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가 함유된 제품이다. MMSC는 상처 난 위의 점막을 수복하고 손상된 위 표면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성분이 위벽의 신진대사를 근본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약해진 위벽이 강화되고 위 운동이 정상화된다.

여기에 소화관 운동 기능을 향진시키는 '창출'과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작용과 위 점막 수복 기능을 돕는 '당약'을 첨가해 제품의 소화 작용과 제산 작용 등을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만성적인 위장병에 효과적이며 평소 위가 약해 속쓰림이나 통증이 잦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윤채윤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연예인도 반한 트리젠코 시계 지난 28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계 브랜드 '트리젠코'의 론칭쇼에 참석한 배우들이 포토세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변정수, 이지훈, 송재희. /손진영기자 son@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의 날' 개최

넥센 목동 야구장에서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최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교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순남 의료원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겸 간센터장, 조영주 기획조정실장 등과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진행된 시구 행사에서는 유 병원장이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은 임찬희씨가 시타를 위해 타석에 들어섰다.

이 의료원장은 "항상 만나던 병원이란 공간을 떠나 야구장이란 열린 공간에서 교직원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간 이식 환자와 행사를 함께해 더욱 뜻 깊은 날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스포츠 마케팅의 하나로 2010년 넥센 히어로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상진 어깨질환센터장(정형외과 교수)은 현재 히어로즈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윤채윤 기자

(사진: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센스있는 며느리 옷차림도 센스있게~

단아한 키트힐에 스타킹은 필수
고급스러운 백으로 패션 포인트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뵙는 집안 어르신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어떤 옷차림이 좋을까. 결혼 직후 시댁을 찾는 새내기 며느리라면 더욱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토털 패션기업 이이브씨 관계자는 "명절에는 장시간 차량을 타야하는 만큼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을 입어야 한다"며 "간편한 옷차림에 가방·신발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보다 센스 있는 한가위 룩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집안일을 많이 해야 하는 명절에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고르는 게 좋다. 앉고 일어서기 편한 팬츠나 레깅스에는 품이 넉넉한 디셔츠나 니트를 믹스매치한다. 상의는 핑크·베이지 등 화사한 색상을 입어야 훨씬 화사해 보인다.

스커트의 경우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를 선택하고, 스타킹을 신어 맨다리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동이 잦은 명절에는 하이힐을 신었다가는 고생하기 쉽다. '키튼힐'은 굽은 낮지만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추천할 만하다. 3㎝의 낮은 굽으로 장시간 신고 있어도 발이 편안하다.

액세서리는 최대한 배제한다. 대신 가방으로 의상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 이때 화려한 색상보다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골라 우아함을 강조한다. /김유진기자 eujin0@

르네상스 서울, '가을 버섯&인삼 프로모션'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추가 스테이션 마련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가을을 맞아 10월 3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 향과 맛, 영양까지 고루 갖춘 '버섯&인삼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은 송이버섯과 인삼요리를 추가 스테이션에 준비해 기존 120가지 메뉴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푸짐한 뷔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프로모션을 통해서는 ▲버섯과 갈비소스 소고기 ▲버섯과 바비큐 새우 ▲버섯과 데리야끼 닭고기 ▲자연송이버섯과 패삼 ▲버섯과 인삼누김 등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가격(세금·봉사료 포함)은 주중 점심 6만9000원, 저녁 7만 원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점심 6만8000원, 저녁 7만2000원이다. 문의 02)2222-3635 /윤채윤 기자

"당찬 여자, 멋있지 않나요?"

당당한 여자에 대한 동경으로 선택

노출·욕설·흡연 연기 등 과감한 변신

"주어진 작품 잘 해내는 배우 되고파"

'타짜-신의 손'의 히로인 신세경

사람들은 신세경(24)을 청순한 이미지로 기억한다.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이 남긴 인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 속에서 신세경은 늘 강하고 당찬 여자였다. '푸른소금'의 킬러, '알투비: 리턴투베이스'의 공군 정비사처럼 남성 중심의 세계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캐릭터로 존재감을 남겨 왔다.

오는 3일 개봉하는 '타짜-신의 손'(감독 강형철)에서 신세경은 또 한 번 남성성으로 가득한 세계에 뛰어들었다.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도박판에서 남자들에 굴하지 않고 승부를 펼치는 여인 허미나를 연기했다. 청순함은 물론 섹시함과 당찬 모습까지 지닌, 여배우라면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다.

신세경이 2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타짜-신의 손'을 선택한 것 또한 캐릭터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다. 멋있는 여자를 꿈꾼다는 신세경에게 허미나는 "동경하는 여성상"이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부터 허미나는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절을 살아왔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인물이거든요.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에도 생색내지 않죠. 의리까지 있고요."

영화는 최승현이 연기한 주인공 대길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허미나는 대길의 인생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결정적 순간에 등장한다. 나중에는 대길과 함께 인생을 되돌릴 한판 승부를 벌이는 중요한 인물이다. 때로는 청순하고 때로는 섹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신세경은 "하나의 콘셉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분장도 바뀌고 비주얼적인 면도 신경 써야 하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영화 속 가장 매력 가는 장면으로는 빚 때문에 도박 하우스에 몸이 묶인 신세인 미나를 대길이 구하는 신을 꼽았다. 인생의 바닥까지 다다른 미나가 대길을 만나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는 순간이다. 절망적인 분위기와 상반되는 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신세경은 몇 마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감정의 눈빛으로 최승현과 함께 애잔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신세경이 미나에게서 느낀 또 다른 매력은 자신의 기구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나의 태도에 있었다. 미나가 대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나 더러운 년이야"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장면이 그렇다.

"그 무심한 말투는 미나의 성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질구질하게 굴지 않죠. 그러면서 바로 '키스할까?'라고 말할 수 있는 점, 그것이 미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주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영화 후반부에서는 과감한 노출과 욕설 연기도 선보였다. 속옷은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분량이 상당한 만큼 여배우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신세경은 다른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역할에 빠져들어 연기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했다.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동식(곽도원)에게는 거침없는 욕설도 내뱉는다. 신세경의 청순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의외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러나 신세경은 "처음 대본 보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라며 웃음을 보였다.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서도 어색하지 않도록 실제로 담배를 피우려고 노력했다.

'타짜-신의 손'은 청순한 이미지에 갇혀 있던 신세경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2년 전 '알투비: 리턴투베이스' 개봉 무렵 인터뷰로 만난 신세경은 쉼 없는 연기 활동으로 조금은 지쳐 보였다. 늘 주목 받아야 하는 연예계의 일상에 대한 피로감도 엿보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신세경은 그때보다 더 활기차고 신나보였다. 휴식과 여유를 통해 배우로서 조금 더 단단해진 결과다.

"지금은 그때보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배우고 있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에너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타짜-신의 손'에서 받은 에너지는 오는 10일 첫 방송되는 KBS2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으로 이어진다. 신세경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대단히 도덕적인" 인물이다. 신세경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큰 배우보다는 주어진 작품을 잘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한 걸음씩 걸어가며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한 작품씩 열심히 해내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아람

DRAMAcube
LEROY'S
MOTOR INN
WELCOME

동방신기 5대 돔 투어 한 번 더

내년 日 데뷔 10주년 기념

그룹 동방신기가 오는 2015년 두 번째 일본 5대 돔 투어를 개최한다.

동방신기는 지난 30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 최대의 여름 음악축제 '에이네이션 스타디움 페스티벌 2014'에서 일본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공연 개최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일본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동방신기는 2월 7일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5대 돔에서 총 12회에 걸쳐 단독 공연을 연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일본 내 해외 가수로서는 최초로 5대 돔 투어 공연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3 타임'을 개최, 85만 관객을 동원했다. 또 동방신기는 이날 에이네이션 스타디움 페스티벌 엔딩 무대에서 총 10곡의 히트곡을 불러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동방신기는 역대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 기간인 3년간 무려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장병호기자

<秋男>

오디션 대세남 '추남' 대결

로이킴·유승우·존박·백청강 일제히 컴백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올 가을 새 앨범을 발매, 가요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엠넷 '슈퍼스타K'의 로이킴(작은 사진)과 존박, 유승우(큰 사진), MBC '위대한 탄생'의 백청강이 새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슈퍼스타K4'의 우승을 비롯해 지난해 '봄봄봄', '러브 러브 러브' 등을 히트시키며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로이킴이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로이킴은 가을 정규앨범 컴백을 위해 현재 음악작업에 매진 중이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K4'에 출연해 톱6까지 올랐던 유승우는 9월 4일 정규 1집 '유승우'로 출격을 앞두고 있다. 정규 1집 '유승우'는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10곡이 수록됐고 사랑, 희망, 가족, 학창시절 등 다양한 주제의 노래가 담겨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실력을 오디션을 통해 검증 받고, 최근 예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존박도 9월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최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극비리에 신곡 녹음 작업을 한 존박은 새 싱글 '유 로 다가'로 가을 팬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유'는 소울 보이스의 브리티시 스타일의 곡으로 알려졌으며 존박의 중저음 보이스와 한층 성장한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날 만큼 스케일 있는 곡이라는 평가다.

'위대한 탄생 시즌1' 우승자 백청강은 오랜 공백을 깨고 가요계 컴백한다. 특히 지난 2012년 직장암 수술을 받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백청강의 컴백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심도 높은 노래를 준비한 백청강은 실력파 프로듀싱팀 심스토릭스와 함께 앨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다수의 곡들 중 장고를 거듭한 끝에 선곡을 끝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오랜만에 돌아온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올 가을 가요계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우기자 ysw@metroseoul.co.kr

백지영 첫 美 단독 공연 매진

'발라드 여왕'의 저력 과시

가수 백지영(사진)이 미국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백지영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LA 클럽 노키아에서 자신의 생애 첫 미국 단독 콘서트 '센티멘탈 메모리즈'를 열고 교민들과 현지인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백지영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백지영의 공연을 보기 위해 LA 클럽 노키아에는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도 함께 객석을 가득 메웠다"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백지영의 주옥같은 발라드 넘버와 댄스곡들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특히 백지영은 미국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004년 발표됐던 5집 수록곡인 '우아'와 '안무'를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 미국 단독 콘서트에서는 미국의 팬들이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며 "백지영의 희로애락과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고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로 관객들과 함께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지영은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천안 등을 투어하며 '2014 백지영 쇼-그 여자'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베트남 폭우도 JYJ 열기 식히지 못했다

4년 만의 공연 6000명 열광

JYJ가 폭우 속에서 6000여 명의 베트남 팬들에게 열광의 무대를 선사했다.

JYJ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호치민 푸언투바이 스타디움에서 아시아투어를 개최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베트남 각지에서 몰려든 팬들이 하늘에 노래를 따라 부르며 2시간 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0년 베트남을 첫 방문했을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규 콘서트로 다시 찾아왔다는 말에 많은 팬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 암코르 무대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JYJ는 빗 속에서 6000여 명의 팬들과 호흡하며 장관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JYJ는 정규 2집 타이틀 곡 '백 싯'과 정규 1집 타이틀 곡 '인 헤븐'과 '겟 아웃' 등 총 24곡의 라이브 무대를 선사했다. 빼어난 하모니와 퍼포먼스를 앞세운 무대는 물론 팝, 록, 댄스, R&B 등 팔색조 매력이 돋보인 솔로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공연 내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관객들은 '비 마이 걸'과 '엠프티' 무대에서는 일제히 춤을 따라 추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JYJ는 "비가 오는데 무척 신나고 비가 우리를 더욱 섹시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같다. 베트남 팬들과 보낸 특별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JYJ는 서울, 홍콩,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6일 중국 청두에서 아시아투어를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돌 예능

1세대 버라이어티, 리얼리티·서바이벌로 발전

1세대 아이돌 god가 '국민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엔 리얼리티 프로그램 MBC '목표달성 토요일-육아일기'(2000~2001)의 역할이 컸다. 원조 예능돌 신화 역시 리얼로망스 연애편지(2004)로 방송 당시 팬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모았다. 2세대 아이돌 2PM은 MBC 에브리원 '뜨거운 그녀 시즌1'로 새로운 예능돌의 탄생을 알렸고 엠넷 '와일드 바니'로 신화의 뒤를 잇는 예능돌로 자리매김했다. 시청률 역시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아이돌과 예능 프로그램은 상부상조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2011년부터 방영된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은 매주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초청해 토크부터 장기자랑에 이르기까지 게스트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지난달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뮤직 '아이돌 스쿨'은 아이돌 그룹 이 넘치고 있는 최근 K팝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능에 담았다. '아이돌 스쿨'에는 수많은 신인 아이돌이 등장해 예능감 익히기와 얼굴을 알리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신인 아이돌이 계속 배출되는 한 프로그램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아이돌 예능은 주로 버라이어티 형식을 취했으나 최근엔 리얼리티·서바이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온스타일은 소녀시대로 두 개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최근 종영한 '제시카&크리스탈'은 소녀시대 제시카와 에프엑스 크리스탈 자매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제시카&크리스탈'은 두 사람의 일상을 담기 위해 '제크하우스'라는 인위적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100% 리얼리티는 아니었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더 태티서' 역시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의 일상을 그린 내용이나 첫 방송 결과 '제시카&크리스탈'에 비해 리얼리티에 가깝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제시카&크리스탈'의 한 에피소드에 등장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던 티파니는 '더 태티서'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자택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데뷔를 하지 않은 아이돌 그룹도 리얼리티에 등장한다. 엠넷은 그동안 제국의 아이들·인피니트·엔플라잉 등 아이돌 그룹의 데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를 여러 편 방송했다.

온스타일 '더 태티서'(위)와 엠넷 '윈 WIN: WHO IS NEXT' 방송화면. /CJ E&M

지난해엔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해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이 데뷔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윈(WIN: WHO IS NEXT)'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승리한 거둔 A팀(강승윤·이승훈·송민호·김진우·남태현)은 지난달 위너로 데뷔했다.

B팀(비아이·바비·김진환·김동혁·구준회·송윤형)은 위너로서 데뷔하진 못했으나 멤버 비아이와 바비가 최근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바비는 아이돌 래퍼라는 편견을 깨고 결승전에 오르고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차세대 인기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돌 예능은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안정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돌 예능은 아이돌의 인기가 시그라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꾸준히 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지영기자 lanui@metroseoul.co.kr

아이돌 주말 안방 연기 대결

'가족끼리…' 박형식 vs '아홉수…' 육성재 vs '삼총사' 정용화

연기하는 아이돌, 일명 연기돌은 이제 각 그룹마다 최소 한 명씩은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 주말 안방극장 속 연기돌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은 현재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 출연 중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는 심남매만 바라보고 키운 아버지 차순봉(유동근 분)이 자식들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가족드라마다. 박형식은 철부지 백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형제보다 큰 막내 차달봉을 열연 중이다.

그는 MBC '진짜 사나이'에서 아기병사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KBS2 드라마 스페셜 '시리우스'에서 쌍둥이 역할로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에서 이진욱의 아역을 맡아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SBS '상속자들',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삼총사' 등에서 연기와 노래를 두루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다.

비투비의 육성재는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의 19세 열혈 유도 소년 강민구 역으로 연기에 도전한다. 데뷔 당시 서인국 닮은꼴로 화제를 모은 육성재가 '응답하라 1997', '고교처세왕'을 모두 인기작으로 만든 서인국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인국이 연기자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엔 외모보다 뛰어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능력에 있었다. 육성재는 지난해 '응답하라 1994'에서 쑥쑥이 역으로 짧은 분량이지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 소화만 잘 한다면 '제2의 서인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성재 역시 "서인국 선배의 닮은꼴로 화제가 되고 그걸로 많이 알아봐 주셔서 고맙고 또 영광스럽다"며 "연기도 잘 하셔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씨엔블루 정용화는 tvN 하반기 최고 기대작 '삼총사'의 주연을 맡았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삼총사'에서 정용화는 원작 달타냥에 해당되는 박달향을 연기 중이다.

극중 삼총사인 이진욱·양동근 등은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들로 정용화는 이들과 함께 극을 이끌어가고 있다. '삼총사'는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제 드라마로 시즌당 12개 에피소드씩 3개 시즌(총 36부작)이 제작될 예정이다. 긴 호흡의 작품이 정용화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나 시즌이 거듭될 수록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면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지은기자

와인에 맞는 추석 제사음식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한 때 '김치 볶음밥'에 맞는 와인 찾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때 김치처럼 스파이시(후추향)한 향을 특징으로 하는 시라나 쉬라즈 품종의 와인이 가장 부합하는 와인으로 꼽혀 절정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명절만 되면 와인업계에서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명절 음식에 맞는 와인'이다. 당연히 이는 와인 수입 판매업자와 홍보대행사들이 만들어낸 마케팅의 결과물이지만 와인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마리아주(mariage), 즉 와인과 음식의 매칭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마리아주의 원칙 중 하나는 그 나라의 전통 음식에는 전통주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에 가장 잘 맞는 술이 우리의 전통주임은 틀림없다.

와인 즐기는 사람은 술 자체로 즐기는 애주가 와 와인 마니아 두 범주로 나눈다면 추석 음식에 곁들여 바실만한 와인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애주가는 와인도 그냥 보리차 마시듯 한다. 이 경우 굳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와인 마니아는 마리아주에 정성을 기울인다. 마리아주를 감안해야 한다면, 추석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와인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육류인 산적은 대개 양념으로 간을 맞추니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동시에 양념을 커버할 레드와인이 최고다. 탄닌이 강한 미디엄바디 이상의 시라(쉬라즈)나 카베르네 소비뇽이 잘 맞는다. 전과 생선에는 당연히 화이트와인이다. 그런데 기름으로 튀겨내는 음식이니 상큼한 와인보다는 오크통으로 숙성해 약간 무거운 샤르도네나 게뷔르츠트라미너 품종의 와인이 제격이겠다. 비빔밥 전파류 과일향이 풍부해서 좋다.

삼색 나물에는 풀향기 그윽한 드라이(단맛 없는) 소비뇽블랑을 권한다. 이 와인은 과일과도 매칭이 잘 된다. 과일에는 또한 강한 스위트 와인이나 이탈리아의 모스카토처럼 약간은 달달한 스파클링 와인도 좋다.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하는 밤에 식구들이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안주 삼아 마시는 와인은 전통술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7	
	6		9			8		5
		2			8			4
			2	5				
3		7				9		8
				8	3			
4			3			2		
5		9			1		6	
	3			4			8	

7							6	8
9			7					4
			9	3				5
				8		3		2
	3	8				5	4	
5		9		4				
4				2	6			
3					7			1
2	5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정상태 나빠 이직·이혼도 생각 중 섣부른 결정은 금물, 실력 키우세요

Q romeo82

2003년에 입사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연봉 인상도 없고 승진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M&A를 진행한다고 하고는 있고 예전에 받던 연봉 인상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투병중이십니다. 와이프는 셋째를 임신했고 와이프는 외식을 좋아하고 근원에 이혼하고 두 형들을 제가 돌보며 사는 것이 솔직히 회사에 나와서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늘어가는 것은 빚이고 재정 상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집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A 남자 사주에서 재성(財星)은 여자와 돈을 나타내므로 돈에 있어 재복이 부족하면 여자도 따르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romeo82님이 생월생시가 꼭 알려 주시지 않았군요. 그러다 romeo82님의 현재 상황으로 사안을 봐서는 재성이 흡실을 당하고 있거나 10년마다 돌아오는 운이서나 연년세세 1년마다 바뀌는 세운에서 재성이 손상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고 비견(比肩) 나와 동급의 오행이 너무 강해서 재성을 극(剋)하고 있거나 재성(재물)을 한 개 놓고 수많은 동급의 오행이 서로 취하려고 경쟁을 벌리는 형상과 같아서 romeo82님이 계획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봅니다.

직장 운을 나타내는 관성(官星) 직장이니 시간 운이 재성의 생(生)을 못 받고 있거나 식상 출을 나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운이 미약할 때 직장을 극(剋)이 강해 관성을 극(剋)하는 사주가 현재 운에서 닥하고 있으면 직장생활도 지지부진 한다다. 바람직한 것은 재성과 관성이 상승하는 시점에 와 있어야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가 있는데 사주팔자와 운의 구조가 안 좋은데 섣불리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면 지금보다 더 못한 백수신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직장을 열심히 알아볼 시간에 자리의 확실한 실력을 키우십시오.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여자도 멀어지게 되는 이치이므로 현재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재성으로 인한 운의 조화 이므로 우선은 돈을 벌어야 가장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이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결정 하는 것은 생각에 달렸으니 다음에 생년월일시와 문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다시 상담을 올리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일(음 8월 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녀 일은 하나씩 손 놓아라. 60년생 중서는 사람이 많아 여행가 무겁다. 72년생 두 토끼 다 잡으려는 생각 버려라. 84년생 준비한 일은 술술 풀어진다.

소: 4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도착한다. 61년생 하루가 급하니 판조하지 말라. 73년생 상대를 이해하면 제 길이 보인다. 85년생 제 일일 말은 사람은 뒤잔 좋발~

호랑이: 50년생 가족 생각하여 행동할 것. 62년생 삶의 전환점이 될 기회가 온다. 74년생 의욕은 넘지나 결과는 미지수~ 86년생 공들인 일은 금석장 열매 맺는다.

토끼: 51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63년생 단체 규약을 스스로 깨지 말라. 75년생 담뿐긴 자숙하고 있는 게 이롭다. 87년생 기회가 왔을 때 물로서기 할 것.

용: 52년생 헐안혼자는 약 꼭 챙겨라. 64년생 기귀완의 각한 돈줄은 술동이 터진다. 76년생 힘들면 쉬어 된다는 표현할 것. 88년생 조직의 틀에 따라야 손해 없다.

뱀: 53년생 낙관했던 일은 무산된다. 65년생 가족과 소통하는데 신경 써라. 77년생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난관도 뚫는다. 89년생 경석이 깔렸으니 재주를 보여주라.

말: 42년생 측근의 뒤통수 조심할 것. 54년생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형국이다. 66년생 운기가 좋으니 적극 움직여라. 78년생 출장 가는 사람은 행운이 따른다.

양: 43년생 후덕한 인목에 찬송이 쏟아진다. 55년생 무돌할 뻔 등산 둘이 최고의 약~ 67년생 나보다 딸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79년생 변화를 두려워 말라.

원숭이: 44년생 안락할 틈을 잊지 말 것. 56년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사가 생긴다. 68년생 걸 같이 떠나까 정신 바짝 차려라. 80년생 약속을 깨면 동료들 등 돌릴 것이다.

닭: 45년생 원하는 대로 일은 풀린다. 57년생 운전대는 가능한 잡지 말라. 69년생 마음먹은 일은 당장 실천해야 효과 크다. 8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실력 보여주라.

개: 46년생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말할 것. 58년생 견제 짧고 뜻을 펼지는 격이다. 70년생 판에 박힌 모범답안 되풀이는 말라. 82년생 기도한 일은 현실화 된다.

돼지: 47년생 적당한 엄살이 필요하다. 59년생 속내 털어놓으면 불이익 당하니 신중할 것. 71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3년생 때맞춰 비가 내린 격이다.

기성용·손흥민 빅리그 무패 질주

팀 주축 맹활약 … 스완지·레버쿠젠 개막 후 전승

한국 축구 간판스타인 기성용(25·스완지시티·작은 사진 왼쪽)과 손흥민(22·레버쿠젠·큰 사진)이 유럽 리그에서도 주축 선수로 팀의 연승행진에 힘을 보탰다.

기성용이 중심을 잡은 스완지시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웨스트브롬미치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했다.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일격을 가한 스완지시티는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전략을 보이며 개막 후 3연승을 질주했다. 선덜랜드 임대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최근 4년 재계약까지 한 기성용은 스완지시티의 초반 이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성용은 이날 경기에서 4-5-1 시스템에서 중원을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공수를 조율했다. 특히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기성용은 후반 3분 상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상대 골키퍼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이며 쓰러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경기를 재개했다. 또 경고를 받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거친 태클로 상대 공격진을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묶었다.

스완지시티는 네이선 다이어가 2골을 넣고 웨인 라우틀리지가 1골을 보태며 웨스트브롬에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22)의 레버쿠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2라운드 헤르타베를린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4-2로 역전승했다. 레버쿠젠은 정규리그 2연승, 승점 6으로 1위를 지켰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전을 뛴 후 율리안 브란트와 교체됐다.

독일축구연맹(DFB) 포칼 1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넣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감각을 보였던 손흥민은 정규리그 첫 골 신고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손흥민은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지는 못했다.

레버쿠젠은 전반 24분 틴 예드바이의 자책골로 0-1 리드를 당한 채 전반을 끝냈다. 그러나 후반 5분 예드바이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레버쿠젠의 반격은 시작됐다. 레버쿠젠은 후반 15분 율리안 쉬버에게 역전골을 허용했고 다시 2분 만에 프리킥을 에미르 스파히치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9분 손흥민과 교체해 들어온 브란트가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고, 카림 벨라라비가 후반 41분 발리슛으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유순호기자

첼시, 스페인 이적생 앞세워 3연승

코스타·파브레가스 돋보여 … 맨유 첫승 또 실패

첼시가 스페인 출신의 두 신입생을 앞세워 에버턴을 꺾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에 올랐다.

첼시는 지난달 31일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올 시즌 새롭게 영입한 스페인 대표 출신 디에고 코스타와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활약을 앞세워 6-3으로 승리했다.

첼시는 개막 3연승을 달려 승점 9·골득실 +7로 스완지시티(승점 9·골득실 +5)를 골득실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반 킥오프 35초 만에 파브레가스가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고, 코스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첼시는 전반 3분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추가골로 달아났다. 그러나 에버턴은 전반 종료 직전 케빈 미랄라스의 골로 추격을 시작했다.

에버턴은 후반 22분 자책골을 넣으며 승기를 내주는 듯 했지만 끈질긴 공격을 펼친 끝에 후반 24분 스티븐 네이스미스의 골로 다시 2-3까지 따라붙었다. 그러자 첼시는 후반 29분 네마냐 마티치의 골로 4-2로 도망갔고 에버턴은 후반 31분 사뮈엘 에토오의 헤딩골로 다시 한 점차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첼시의 막강 화력은 멈출 줄 몰랐다. 후반 32분 라미레스가 추가 골을 넣었고 선제골의 주인공 코스타가 마무리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첼시의 디에고 코스타가 에버턴의 골키퍼를 따돌리고 득점하고 있다. AP 뉴시스

코스타는 이날 2골을 추가하며 정규리그 4골로 프리미어리그 이적 3경기 만에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에버턴의 네이스미스와 스완지시티의 네이선 다이어가 3골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한편 루이스 판할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또 다시 시즌 첫 승 달성에 실패했다. 맨유는 이날 번리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을 기록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앙헬 디 마리아를 선발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디 마리아는 40m짜리 공간 패스를 보낸 걸 페르시에게 한 차례 찔러준 게 이날 유일한 활약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앙헬 디 마리아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상대 공격진을 힘겹게 돌파하고 있다. /AP 뉴시스

/유순호기자

윤석민 MLB 볼티모어서 방출대기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노력하던 오른손 투수 윤석민(28·볼티모어 오리올스·사진)이 방출 위기에 몰렸다.

볼티모어 선 등 미국 언론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40인 로스터에서 윤석민을 제외 방출 대기 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40인 로스터는 각 구단의 보유 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출 대기는 구단에서 40인 로스터를 정리할 때 당장 필요가 없지만 그냥 방출하기에 아까운 선수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윤석민은 10일 안에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되지 않으면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이거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새 구단을 알아봐야 한다.

다른 구단의 러브콜을 받지 못하면 빅리그 무대를 밟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윤석민은 22경기에서 3승 8패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 중이다.

한편 볼티모어 선은 "윤석민의 방출 대기 조치는 현재 40인 로스터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민과 코드 펩프스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함으로써 볼티모어에는 두 자리의 여유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프로야구 전적 31일

■ 잠실

팀				R
롯데	002	102	001	6
LG	000	002	000	2

[illegible]

■ 대구

팀				R
넥센	001	011	013	7
삼성	000	000	000	0

[illegible]

■ 광주

팀				R
SK	111	100	000	4
KIA	020	010	000	3

[illegible]

■ 마산

팀				R
두산	410	105	001	[illegible]
NC	102	002	100	[illegible]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31일

홈			원정
울산	[illegible]	2	포항
서울	0	0	제주
전남	2	1	전북

[illegible]